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예수 성심 성일)
제31권 29호(가해) 2011.6.12

[묵상]



성령 강림<14세기, 조토 디 본도네, 이탈리아>

□ 성령송가 □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만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쌍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최혜정 미카엘라, 홍화선
특전미사	(생)이정숙 루시아
주 일 낮 미사	(연)이덕철 루카, 이재우 마티아, 이숙자 루피나, 권순봉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노식 베드로, 김완태 다미아노, 신태동 요아킴, 박승희, 임규호&임승자, 최병기 요셉, 정요임 안나, 박정이, 엄은섭 도로테오, 이강봉&임병삼 안나, 정윤봉 베드로, 김성용 방자거, 오상훈 요한, 백낙철 베드로 (생)정규숙 안나, 강덕희 율리아나, 백지자 세레나, 이경용 아고보 & 이윤조 글라라, 김형순 다니엘, 전우용 안젤라 메리치, 정학순 발바라, 김영철 바오로, 김영길 안드레아, 김복희 로사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당신숨을 보내시어-여, 온누리의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으시니!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2,31-7.12-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요한(John)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16	315	317
봉헌	270	261	261
성체	Refiner's Fire	295	309
파견	383	317	312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성역'인 가정

92).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 안에서 가정은 결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 책임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혼인으로 성립된 공동체인 가정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사랑을 보호하고, 드러내며,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부모들은 그 사랑의 협력자이며, 그들이 생명을 전달하고 자신의 아버지다운 자애로운 계획에 의해서 그 생명을 양육할 때, 그들은 말하자면 생명을 해석해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이타적이고, 수용적이며, 선물이 되는 사랑이다. 가정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그가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존경받고, 존중된다. 그리고 만일 어떤 구성원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면 지극히 철저히하고도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보살핀다.

가정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구성원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은 참으로 "생명의 성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은 당연히 환영을 받으며 생명에 가해지는 많은 공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의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가정의 역할은 결정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경축하며,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의무는 우선 혼인한 부부들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그들은 유일한 사건인 출산이 지닌 의미를 더욱 크게 깨닫고 생명의 수여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인간 생명은 그것을 다시 선물로 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 유일한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모들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사랑의 결실"인 그 아기가 "이번에는 그들 두 사람에게 선물이 되며, 그들에게서 나온 선물"임을 알게 된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완수한다. 부모들은 관계와 선택의 일과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상징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진지한 자기 증여로 실현되는 진정한 자유로 인도해 가며, 자녀들 안에 타인들에 대한 존중과, 정의감과, 진심어린 개방과, 대화와, 너그러운 봉사와, 연대와, 그 외의 모든 가치들을 심어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하느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계속)

“평화는 용서의 무대에 올려지는 연주곡”

노란 프리지아가 아름다운 것은 하얀 안개꽃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제주 유채꽃이 선명한 빛깔로 다가오는 이유는 검붉은 현무암 돌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듯, 삶이 아름다운 것은 상처가 미움의 빛에 갇히지 않고 용서의 커튼을 드리우기 때문이고 높고 견고해지는 폭력의 장벽에 평화의 햇살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듯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은 용서와 평화의 햇살로 특별한 은총을 친근한 일상이 되게 합니다. 미움과 폭력이 삶의 잔혹한 변주곡이라면 평화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만 올려지는 연주곡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평화와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평화와 용서는 성령의 이끌림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왜 평화와 용서를 연결시켜 놓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화는 행복의 마당이고 용서는 그 마당에 들어서는 대문이지만 성령의 인도 하심 없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정의라는 이름 아래 보복을 꿈꾸고 사랑과 자비의 환상만 심어준 채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려 합니다. 용서라는 열쇠는 사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평화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화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물이지만 과거에 묶여져 있는 마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주어지는 현재의 축복이고 나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시는 분”(마태 18, 20) 이시기에 평화와 용서, 사랑과 자비라는 나라는 늘 ‘함께’라는 말을 떠나서 생각되어질 수 없습니다.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늘 ‘함께’가 아니라 ‘나만’이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은 자신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만의 두려움에 함께하기를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성령과 함께하면 쉬워지는 것이 용서이고 혼자는 누릴 수 없지만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삶이 미움 끝에 용서할 줄 알고, 비판 끝에 이해할 줄 알고, 질서 끝에 사랑” 할 줄 아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안다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 버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래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종업식

- 일시 : 6월12일(주일), 주일학교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중애, 한국학교 : 오후 1시 강당

◆ 새학기 주일학교 등록 오늘(12일)부터 받습니다.

- 1차접수 : 12일~6월26일(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등록비 \$20 추가됨)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가톨릭청소년 성화그리기대회 백삼위 주일학교가 휩쓸

- 최우수상에 본당 주일학교 10학년 황예리 에밀리아나를 포함해서 고등부 1등 김지에 크리스티나, 초등부 우수상 위여민 마리아, 장려상에 이인수, 칼란타 수정 사라, 최레이나, 최라이언 등 모두 7명이 입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성당집합시간 : 초/중등부 금요일 오전 9시, 고등부 금요일 오후 2시
- 개인차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연락 바람
- 캠프후 성당도착시간 : 26일(주일) 오후 5시 예정

남가주 소식

◆ 교재용 교수, 주일학교 학생대상 첼로 레슨

- 지도교수 : 교재용 베드로(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박사, 부산 동아대교수, 첼로/바이올린 교재46권 출판)
-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 성격과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선택을 권해드립니다.(그룹지도 가능) * 문의 ☎(213)550-6203

◆ 남가주한인가톨릭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일시 : 6월19일(주일) 낮 12시30분~오후 4시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운동장

◆ 남가주 M.E. 골프대회

- 일시 : 6월21일(화), 낮 12시 등록, 티오프 오후 1시
- 장소 : 리버사이드 Oak Quarry 골프클럽
- 진행방식 : 샷건플레이 * 회비 : \$100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단 제5회 정기 연주회 및 성음악 미사

- 일시 : 6월25일(토) 오후 7시
- 장소 : 세인트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 1부 : 미사집전(전홍식 요아킴 신부)
- 2부 : 라틴성가 발표 *문의 : ☎(310)634-9631 민원희 안나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개강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위해'

- 주제 : 공관복음서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 일시 : 6월24,25,26일(금,토,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LA)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수강료 : \$50(1일 \$20) ☎(323)731-4433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양금 안나 518-3041 6/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장수영 패트릭 (213)489-9888 6/18(토) 오후 7시,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17 6/17(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야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최은경 카타리나 650-3134 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25	김화수 올리아나 433-9075 6/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720-7898 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오태환 바오로 750-4051 6/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복희 토사리아 920-4720 6/10(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748-7323 6/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석만 사무엘 750-6007 6/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6/1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544-1009 6/27(일)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주일학교/한국학교 종강식 미사 후 은총시장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말씀의 이삭

무명 순교자를 기억하며

몇 년 전 충청도 해미읍 성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할 때마다 그곳을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잔인하고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던 곳입니다.

조선 말기 지배 권력의 세도정치와 부정부패로

국정이 문란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시절, 민심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되었고, 해미에서도 덕산, 함덕, 서산, 청양, 예산 등 충청도 서부지역의 수많은 천주학생이들 읍성에 잡아들여 옥에 가뒀습니다.

잡아들인 사람이 하도 많아 해미 진영장은 누가 천주학생이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천주학생이들을 즉시 처형하라고 다투었고... 그래서 진영장은 천주학생이들이 목주를 끔찍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서 성문 앞에 목주를 놓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목주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풀어주고 피해 가는 사람은 성문 옆에 있는 물둑병에 처넣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물둑병은 옛날 가뭄에 대비하여 땅을 너비 15m, 깊이 5m 정도로 파서 말뚝과 솔가지 등으로 엮어 웅벽을 세워 만든 우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문 앞에는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인근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특히 수많은 천주학생이 가족들도 나왔습니다. 교우들이 하나하나 성문을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절규했습니다. "OO아, 목주를 밟고 가, 밟아 밟아." 무명 순교자께서 성문을 나서는 순간 사망에서 "OO아, 밟아 밟아."라는 절규가 들렸습니다. "오 천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절규하는 부모, 자식, 아내, 남편, 형제, 친척들의 눈을 보면서 목주에 입을 맞추니다. "저놈을 물둑병에 처넣어라." ... 무명 순교자들이 목주에 입맞춤했던 행위는 세상의 복음화에 저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따르겠다는 표징입니다.



신앙의 증거인 순교자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 직업은 출판입니다. 책을 펴내는 일이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어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등을 밝혀주는 것이 책을 내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획된 것을 실천하려면 필자 선택, 번역자 선정, 발행 시기 결정, 편집자의 역량, 전국 영업망 확보, 광고 및 마케팅 문제, 확실성 결여, 디자인 선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날수록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적당히 그 시대의 유행이나 세대별·성별 등의 관심사에 편승하면서, 적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요.

적당히 하면 책을 통한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힘들면 목주도 밟고, 다시 교해성사하고, 안락에 안주하면서요?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글을 사용하는 출판인으로서 책을 펴내면서 사랑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주에 입을 맞추어 죽음을 택한 무명의 순교자를 기억하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이건복 프란치스코 / 출판인

성령께서는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고, 끊임 없이 새롭게 하시며,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될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 4항 -